

#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 -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구 혜 령(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팀장)

### I. 들어가면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과 더불어 가족친화 직장환경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하고,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정부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에서 제시한 정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sup>1)</sup>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한 내용들로

1) 이 교육프로그램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를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목적	내용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들에게 일과 가정간의 역할에서 있어서 균형 잡힌 생활이 얼마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알려 줌.</li> <li>• 아버지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아버지의 역할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비전 : 인생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li> <li>• 자신과 다른 이를 존중하기 : 긍정적 관점을 통한 일과 가정 균형 찾기,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강점을 보는 시각으로 전환</li> <li>• 부부의 행복디자인 : 부부관계 강화의 동기를 높임, 부부 의사소통 역량 강화, 친밀감 및 긍정적인 부부교류 강화</li> <li>•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건축가 :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의 행복리더로서 자녀와 관계회복, 아버지들의 리더십 회복</li> </ul>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일 중심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남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요구하는 가정의 압력과 아버지 역할을 방해하는 직장의 압력으로 인해 일-가정간의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 영역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만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가정 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삼성경제연구소(2000)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급여수준, 고용안정성, 승진을 제치고 1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성균관대학교(2005)에서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가 회사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Towers Perrin(2003)의 조사에서는 회사의 핵심인력이 이직하는 이유 중 1위가 승진, 상사와의 관계문제이며, 2위가 일과 생활의 균형문제임을 보고하고 있다(우종웅 등, 2009, 재인용).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가족원에 대한 돌봄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해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량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각종 수당 등을 통해 보전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의 가족친화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기업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많지 않은 형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기업에서 가족친화 교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업 경영자가

이용하거나 혹은 자체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자를 표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 후에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셋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특성, 요구도를 분석한 후에 이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유가호, 2008).

끝으로 교육의 경험이 삶의 현장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일-가정 균형전략, 의사결정 기술, 가정생활 정보나 지식 등)은 지양하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우종용, 2008).

##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에는 가족품앗이와 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가족이 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이 마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2>참조). 즉 ‘가족의 마을화’가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의 핵심 키워드이다. 가족품앗이 사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가족품앗이 사업은 가족 내의 약해진 돌봄 기능이나 안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양육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아주는 품앗이로 전개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품앗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 및 가족 간 연대, 돌봄, 나눔의 활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는 데 주 방향을 두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단계별, 대상별 등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가족친화 마을조성을 위한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참여주체	지지수단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건강가정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 가족품앗이, 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품앗이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을 품앗이 하고 싶어 할 경우 이들을 묶어 주고 지원하는 사업</li> <li>- 가족봉사단 : 2인 이상의 가족이 1달에 1~2회 활동을 하게 되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이웃사촌 한가족 : 가족같이 도와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을 맺어가는 사업. 이웃사촌 한가족으로 지정되면 아이들을 함께 놀며 봐주는 외에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센터에서 지원하며, 또래 친 구가 있는 이웃을 찾거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이웃, 또는 취미가 비슷한 이웃들을 센터를 통해 소개 받는 프로그램이 가능함.</li> </ul> </li> <li>• 공간 : 공동육아 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육아 나눔터(혹은 육아정보 나눔터)는 가족들의 육 아 품앗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li> </ul> </li> </ul>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모든 사업의 운영을 직접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가족품앗이 활동이나 가족봉사단의 운영을 맡아 줄 지역사회의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에 그들에게 지역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해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배양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지역사회 리더로써의 자질함양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네의 품앗이 육아방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성산1동의 ‘무지개 육아사랑방’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활동가 1인(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이 활동가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협약을 통해 육아사랑방의 운영에 대해 교육 받은 후, 현재의 육아사랑방을 일궈 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이나 사업 운영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앙센터 차원에서의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민자치적인 조직을 형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지역사회의 리더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스스로의 역량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이 진행되어야 한다. 자조모임이란 ‘공통의 목표 혹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자발적 의지와 협력적 상호연대, 정기적·지속적 경험 및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정서적지지 및 상호 환류(feedback)로써 문제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인·사회(정치)적 변화를 도모하는 소규모 결사체’로서(이경준, 2006), 자조모임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이 증대될 수 있다.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의 보급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족품앗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의 컨텐츠로서 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다.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급함으로써 사업 참여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3> 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사회 내 리더 양성 교육 현황

수행기관	프로그램 명	추진방법	추진성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마을리더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리더 및 활동가, 생활코디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가족친화마을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li> <li>• 가족친화마을 우수마을 기관방문 및 리더십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리더의 가족문화조성사업 비전 공유, 마을리더로서의 자신감 부여</li> <li>• 무지개교육마을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운영 가능성 제기</li> </ul>
인천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품앗이 모임 리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앗이 모임 리더의 역량 강화</li> </ul>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맘리더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맘리더 그룹을 모집하여 결혼과 자녀출산 정보, 가족품앗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가족 품앗이 활동을 위한 맘리더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맘리더 교육을 통해 양성된 품앗이 회원이 가족활동 참여로 연계</li> </ul>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10). 가족문화조성사업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결과보고서에서 발췌

### III. 나가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주입식 형태의 교육이 아닌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내 가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마을을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활동의 자발성 및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의 특성(도시, 농촌 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센터에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2010). 가족문화조성사업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결과보고서.
- 우종용 · 이찬형 · 김지은(2008). 근로자의 가족친화성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일 · 가족지향성, 일 · 가족전이 및 가족여가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3권 제2호, pp.15~26.
- 유가효(2008).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pp.222~232.
- 이경준(2006). 장애인 자조모임의 발전과정 분석과 자립생활에의 실천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pp.171~176.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010 가족품앗이 사업 확대방안 토론회.



##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 -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 선 미(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교수)

이 글에서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후반기에 시행됨) 아직 많지 않지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교육프로그램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의 교육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다섯 살이 되었을 뿐이며 가족친화관련 사업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의 방식을 전개한 것은 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발표자는 가족친화일터만들기 부분에서 아버지가 행복한 일터만들기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일-가정 관계를 갈등적으로 보는 시각의 편협함을 지적하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제안한 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정과 일터를 통해 어떤 방식의 균형을 꾀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보상적 관점, 경계 관점 등-으로 일터와 가정의 관계를 보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상이한 필요가 있으며 그런 필요를 어떤 식의 교육으로 채워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이 적은 이유를 경영자의 인식전환에서 찾아 그 해법으로 경영자교육을 제안한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심사에 관여하는 전문가의 전언을 보아도 경영자의 의식전환과 결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경영자대상 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도 다른 기업의 도입사례와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이 기업에게 가져온 효과를 입증할만한 자료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시도하는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바쁜 경영자들에게 어떤 유인을 제공하여 교육의 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나 경영자에게 가족친화교육의 효과성증진을 위해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구체적 기술 들보다는 문제인식 즉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핵심적인 활동중심의 교육방식을 언급한 점도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 근로자나 경영자들로 하여금 가족 친화적 일터의 삶을 살아내도록 전환하게 할 수 있을지

센터가 교육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효한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대상 가족친화교육이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준비교육을 대기업의 미혼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두 번째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족품앗이와 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 가족의 예를 들었다.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은 지역내 산발적인 거점들의 자율적인 형성에 의해 그리고 정부의 예산지원사업에 의해 현재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때 중앙센터와 지역에 기반을 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일은 무엇일까? 중앙센터는 가교의 역할을 그리고 지방 센터는 사업현장과 사업의 주역들을 발굴하여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민들(리더와 협력자 모두 포함)의 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먼저, **상호가르치기의 십자로의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 현장실험에서 성공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의 소개의 장이 되는 교육하는 장, 성공을 주도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추종자들을 교육하는 장으로 센터가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게소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마을도서관 만들기 및 가족친화마을만들기 주역들 등을 초대하고 각 분야 관심 있는 리더들을 자발적으로 혹은 격려하여 교육받고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가족친화마을만들기에 해당하는 개별 사업의 진행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하여 경험의 전수와 특수한 상황에 적용가능한 형태가 무엇인지 함께 디자인해 보는 식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매체의 개발과 보급**에서 중앙센터와 지방센터가 공조할 수 있다. 자조모임은 공통의 목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적 상호연대 정기적 지속적 경험 및 정보교류와 이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상호환류로써 문제해결을 모색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소규모 결사체라고 하면서 발표자는 자조모임의 표준화된 매뉴얼개발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개인에게서 개인에게로 계몽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집단의 경험이 새롭게 전진하는 또 다른 집단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친화마을의 거점들의 활동을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담당자의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생활의 문화화 문화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입대위가 단지 내 교육시설을 갖추고 입주자가운데 교육할 사람을 찾지만 가족친화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주민은 드물며 다른 내용이라면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 가족단위의 활동을 기획하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을도서관에서의 강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클테면 개발된 자조모임의 형성방법이나 자원활동집단형성방법 등이 소개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기는 어렵지만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오가며 마을강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교육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